

한국 ‘자유민주주의’ 안전한가?

입법-행정-사법 ‘3권장악’ 민주당 정권 행보 관심

“민주여 보라! 저 휘날리는 자유의 깃발을!”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1960년 4월 혁명은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사자후(獅子吼)로 시작됐다. 자유당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한 불같은 민중의 분노는 ‘민주공화국’(國體)과 ‘자유민주주의’(政體)의 ‘대한민국’(國家)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國父)의 자진 하야를 촉발했고, 그렇게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국민이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곧추 세운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다.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4월 혁명에서 우리가 얻은 역사적 교훈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뿌리는 ‘자유’(自由)라는 사실이다. ‘자유’가 무엇인가? 16세기 근대 문명의 르네상스 시대를 품어냈던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권력자로부터)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와 책임”이라고 통찰했다. 고대 로마의 4백50년간 지속됐던 ‘공화정’을 정치사학적으로 분석한 <로마사 논고>를 통해서다. 그리고는 “모든 공화국은 내부갈등을 통해 성장한다”며 “내부 갈등은 억제보다는 (제도적으로)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도자의 덕목(비르투 Virtù)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꿰뚫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의회주의), 삼권분립(분권주의), 법의지배(법치주의) 세가지의 정치이념을 근간으로 작동하고 구현된다. 집중되는 권력의 속성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이는 17세기 이후 2백년



사상 최초로 ‘무자료 무증인’으로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맹탕’ 청문회는 앞으로 민주당 정권의 행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였다.

박’ 주장으로 압박하여 사법부 스스로 꼬리를 내리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재명 피의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8개 사건, 12개 형사 혐의, 5개 재판은 무기연기되거나 연기될 운명이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선거법위반의 파기환송심은 이미 무기 연기되었다.

법원이 연기 이유로 내세운 것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조항이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형사소추에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판결로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헌법 68조 내용이 있어 법학계에서

김민석 총리후보 청문회 ‘제로검증’ 맹탕 사법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무장 해제

의 인류 집단지성이 찾아낸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의 정치체제다. 1990년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정치의 횡포, 선전선동과 포퓰리즘 유혹에 함몰된 여의도 정치권, 탄핵과 특검의 횡행, 12·3 비상계엄과 ‘내란몰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 21대 대통령선거... 지난해 4월 실시된 22대 총선 이후 숨가쁘고 급박하게 휘몰아친 한국정치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1987년 시민혁명으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한 이후 최고의 권력 집중이 나타났다. 바로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야당으로 175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데 이어(야권 전체는 192석), 윤석열 탄핵과 파면으로 성사된 올해 21대 6·3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의 완전 장악에 성공했다. 여기에 ‘바람이 불기도 전에 스스로 누워버린’ 사법부의 용기(?)에 힘입어 사법부까지 사실상 손에 넣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삼권 장악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1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뜬금없이 ‘사법개혁’을 내세워 대법관 대폭 증원, 4심제도 도입 등 위헌적인 ‘법제완

조차 논란을 빚고 있다. 헌법 해석문을 둘러싼 논란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오찬에 초대했을 때 야당이 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법치주의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원칙적이고도 최소한의 정치적 요구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대변인 성명서로 “임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 대통령에게 무도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는데 바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국회

<2면에 계속>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바로알기

Kjtv 다큐멘터리 주1회 방영 인기폭발

대한언론인회, 현충사서 세미나-역사문화탐방



회우들의 단합:

지난 5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 세미나(이순신 장군의 소통 리더십) 및 역사문화탐방에 회우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조명동 본회회우·전 경향신문 사진부장〉

광고주協-반론보도닷컴, 사이버언론신고센터 개설

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6월 9일 반론보도닷컴과 함께 사이버언론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광고주협회는 “최근 일부 매체가 금융, 투자은행(IB) 부서를 신설·강화한 뒤 기업 실적, 투자 이슈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협찬 또는 광고, 구독 계약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한 언론환경조성을 위

해 ‘2025 사이버언론 신고센터’를 운영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와 반론보도닷컴이 뽑은 대표적 사이버언론 행위는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또는 매체 창간·이동을 이유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팩트체크 없이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올리는 행위 ▲유료 정보사이트 계정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각종 부당한 경비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광고주협회는 “최근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투자 관련 왜곡된 뉴스를 팩트체크 없이 내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홍보팀에서 사실 데이터를 근거로 기사 정정을 요구해도 듣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기사의 삭제를 대가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언론사 내부에서 기업 압박용 부정 기사 작성을 강요받는 기

마무리시 권영섭



자들의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출 압박과 광고 유치 지시로 인해 본연의 취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들도 사이버언론의 피해자”라며 “내부 제보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유혹’ 뿌리치고 헌법 수호해야

〈1면에 이어서〉

에서 벌어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삼권을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치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고 할 수 있다. 25년 청문회 역사상 초유의 무(無)자료, 무(無)증인으로 진행된 김민석 인사청문회는 예상했던대로 ‘제로 검증’의 맹탕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문제는 22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는 일방통행의 일당독재가 횡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청문회 전부터 무력했던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행정부를 견제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최소한이라도 보여 주었어야 할 절대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심한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엉터리 청문회를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버젓이 해치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DJ 때라면 김민석은 벌써 낙마했다”는 자조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새겨 들어야 한다.

“일극 체제”에서 ‘일인 독재’로, “독재하면 저항한다.”

거리에 휘날리는 현수막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하며 수많은 ‘독재’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골수 지지층(개팔), 정치권(민주당과 위성정당들), 시민사회(진보 좌파), 노동계(민노총), 외국(중국 북한) 등 저마다 정권창출의 계산서를 들이밀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재 유혹’은 정말 떨치기 힘들 것이다.

지금 서울 상공에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차베스 등 독재자의 유령들이 배회하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먹이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자기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신기루를 걷어내고 그 너머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미래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진짜 대한민국’이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해 보이면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액턴경의 경고를 항상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

이규진<총괄부회장>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무더기 생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법치주의 근본 상실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이 전과 4범에 8개 형사사건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을 소위 ‘윤석열 내란특검법’ 등과 함께 묶어 민주당 정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항소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후원금수수사건 1심까지 무기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을 모조리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소위 ‘이재명 재판중지법’)과 선거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면소(免訴)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재명 처벌면제법)을 지난 5월 14일 국회법사위에서 각각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5월 15일로 지정한 이 피고인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후인 6월 18일로 재 지정했다가 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예 공판기일을 추후지정(무기연기)키로 했다. 위증교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 역시 모든 공판기일을 무기 연기해 버렸고, 서울중앙지법도 6월 24일로 예정된 대장동관련 사건 1심을 무기연기했다.

이런 추세로 보면 7월 1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私用)사건과 7월 22일로 예정된 800만 달러 대북불법송금사건 1심 재판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기 연기된 재판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나,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고 보면 5년 후인 2030년에나 재개 가능하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

재판부	사건	혐의 주요 내용	진행 상황
서울고법	1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물랐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 등 허위 사실 공표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지정)
	2 위증교사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을 때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 요구	2심 연기 (추후지정)
중앙지법	3 대장동·백현동·성남FC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 재판 1심 연기 (추후지정)
수원지법	4 대북 송금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800만달러 대납	1심 7월22일 공판준비기일
	5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1심 7월1일 공판준비기일

5개 재판 ‘유명무실’ 정치 권력에 굴복 사법부 독립성 훼손·공직자 책임론 부정

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5월 15일로 정한 재판기일을 대선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가 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월 9일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무기 연기)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치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왔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설은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즉 국정 안정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해온 재판까지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대통령이라도 판결로 직위를 상

실할 경우 60일 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들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로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다는 이 조항 규정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돼온 재판을 전제하고 있다’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설명한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본인(피고인)을 기준으로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는 입원치료·중대한 수술 예정·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소송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질병,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나 해외 거주, 군 복무,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출산 등으로 일정 기간동안 재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인데 이 대통령은 이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일련의 이 대통령 재판 무기 연기와 관련,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를 꿰었다.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라며 “민주당과 법원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를 왜 두고있으며,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중지법·처벌면제법 제정과 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무기연기결정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근본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직자 책임론을 부정하는 것이다. ☐

내홍 휩싸인 국민의힘 ‘가시밭길’

대선 패배 무기력증...변화·혁신 없이 우왕좌왕



이도선
본지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6·3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좌파 세상이 됐다. 그들은 진작 입법부를 장악했고, 탄핵 사태 와중에 여실히 드러났듯이 사법부도 곳곳에 진지를 공고하게 구축해 놨다. 이제 행정부까지 차지했으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재 체제가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앞에 선 야당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한 달이 되도록 당의 정체성과 혁신 노선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1극 체제’ 아래 일사불란한 민주당과는 극명한 대조다. 대선 기간에 어중이 우파를 다수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공들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파 갈등에 매몰돼 있어 불쌍사납다. 썩 믿을 건 못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좌파의 득세가 완연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게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중후반까지 치솟은 반면 국민의힘은 20%대로 지난 5년 간 최대 격차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의원은 “미래만 보고 쇄신하겠다”며 혁신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친윤(윤석열), 친한(한동훈) 등의 계파 구분 없이 다양한 위원들을 혁신위에 담겠다지만 친한계는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송 대표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각 계파가 골고루 참여해야 하거늘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 8월 전당대회 개최가 가시화되면서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으나 새로이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가 없어 대선 경선 주자들의 리턴 매치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당내에서 반탄(탄핵 반대)파와 찬탄(탄핵 찬성)파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1차 경선에서 반탄파(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파(안철수·한동훈 후보)가 2명씩 살아남았고, 2차 경선도 반탄파 1명(김)과 찬탄파 1명(한)으로 갈렸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치러진 3차 경선에서 김 후보가 이겼다. 김 후보는 그러

고도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책으로 곤궁한 입장에 빠졌다가 당원 덕분에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으나 끝내 패배하고 말았다.

패배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범(凡) 우파 후보 단일화 실패 못지않게 한·

만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첫 회동에서 “임기 끝나고 재판받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고약하다. 이 대통령이 받던 재판들은 대선 후 모조리 중단됐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의 난관을 극복하고 굳건히 일어서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당의 정체성 확립과 전열 재정비가 시급하다. 우선 적에게서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좌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 타령에 돌입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방탄’에 매달린 끝에 현직 대통령을 또다시 끌어내리고 대권을 잡는 데에 성공했다.

우파도 그런 전의로 불태워져야 한다. ‘부자 정당’으로 안 된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계엄·탄핵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해가 아니라 당의 단합을 다지고 민주당의 패악상과 실정을 낱알이 까발리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물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정신’이 소환되는 것도 그래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치는 바람에 50석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소신있는 지도자 중심 내년 지선 반격 시급 ‘천막당사 정신’ 되살려 국민 공감 이끌어야

홍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의 외면과 김 후보가 옹립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엇박자 탓이 컸다. 한마디로 똥똥똥쳐도 될까말까 한 판에 제각각이었다는 얘기가.

특히 김 위원장은 생뚱맞게 취임 일성으로 외친 ‘계엄 사과’를 선거기간 내내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유로 내세운 민주당의 패악질, 즉 장관·감사원장·경찰청장·검사 등에 대한 출탄핵과 비상식적인 대통령 실·감사원·검찰 예산 삭감 등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미 확인된 당심에 총부리를 들이대며 민주당 나팔수 노릇을 한 꼴이다. 아무리 35세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라지만 전장에서 피아(彼我) 구분도 못하는 치기에 어떻게 우파의 미래를 맡기겠는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이랍시고 계속 되뇌는 것도 그렇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그 뒤를 따랐고, 나머지 재판들도 현 정권에서는 안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가 안 될 뿐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강하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시민들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되고 이들을 중징계하라는 청원이 진행되는 이유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데도 야당 비대위원장이란 자가 대통령 면전에서 “임기 끝나고 ~~” 운운한 것은 일종의 이적행위다.

우파는 전에 없는 위기다. 대선 패배로 심한 무기력증에 빠진 채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하는 한심한 처지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현재

도 못 미칠 것이란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121석이나 건졌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여의도공원 인근에 천막당사를 꾸리고 진정성 있는 자성 노력으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은 덕분이다. 박 대표는 당원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고 유죄로 확정되면 영구 제명하는 등 내부 징계를 강화하고, 인재 영입위원회를 신설해 새 인물 총원에 힘쓰는 한편 밀실 공천에서 벗어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민의힘도 그때의 ‘헝그리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저마다 어설픈 자기 정치 하겠다고 나서선 될 일도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청렴하고 소신 있는 지도자를 모시고 전열을 가다듬은 뒤 말 많은 부정선거 의혹부터 철저히 파헤치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살 길이 생긴다. 그게 우파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란’ 소동은 현대판 사화(士禍)다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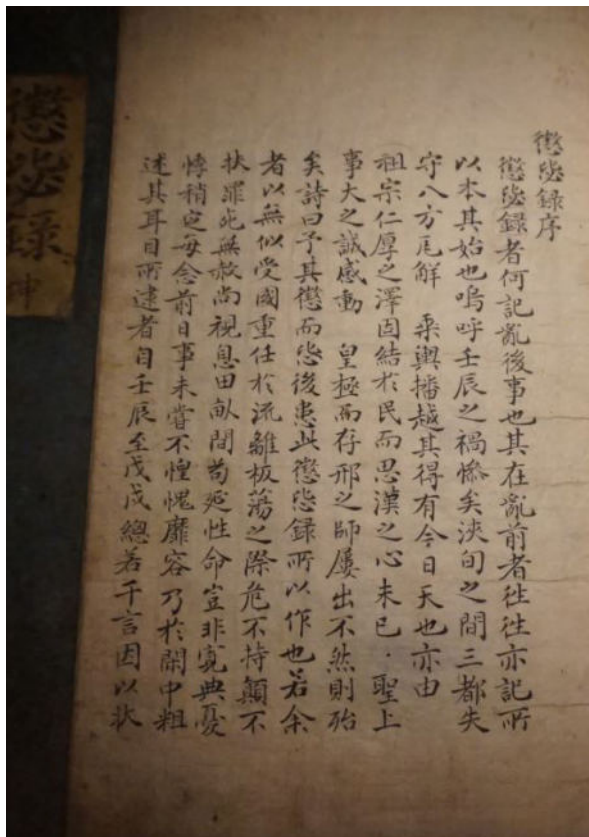
임진왜란과 조선의 사화·당쟁을 제6공화국의 ‘적(敵)패몰이’·‘적폐(積弊)청산’ 검증을 위한 징비(懲毖)로 소환한다.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류성룡의 징비록(사진)으로 재조명한 송복 원로언론인(정맥·사상계 편집장·연세대 명예교수)은 국민을 ‘내편’과 ‘내편’으로 양분하고 국가체제를 반민주·전체주의로 역행(逆行)역진(逆進)하는 현재 제6공화국의 탄핵·특검 폭주는 임진왜란 전후의 ‘적(敵)패몰이’·‘적폐(積弊)청산’의 데자뷔(Déjà vu)라고 지적하며 임진왜란 교훈이 이 모순을 극복하는 징비(懲毖)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복 원로언론인은 최근 펴낸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에서 사화·당쟁의 폐습이 우리를 포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386 운동권 세력이 진영을 구축해 배제와 단합의 정치로 시작한 ‘적(積)폐청산’·‘적(敵)패몰이’ 폐습이 6공화국 정치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6공화국은 ‘민주화’와 ‘적폐청산’ 구호를 외쳤으나 정치가 적폐중의 적폐인 ‘귀족노조’·‘지역 부패세력’·‘급진 좌편향 세력’과 밀착해서 더 큰 적폐를 쌓고 있으며 국회는 그들의 이른바 ‘적(敵)패거리’ 박멸로 아수라장으로 전락, 정치는 실종됐다.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이 흔들린 한국 사회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고, 정치 불신은 임계점에 이르렀으며,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우파지식인들은 한탄한다.

탄핵·청문회·특검 등을 동원한 제6공화국의 구질서 해체 소란은 임진왜란 전후 당쟁의 판박이다. 정의로 워야 할 적폐청산이 정적박멸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원한·분노·한풀이가 반복되고 있으며, 국회 다수당 권력의 입맛에 맞춘 탄핵·특검의 법 오용·남용과 의회 횡포는 전근대 조선의 당쟁의 모순에 버금가는 많은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다.

조선 14대 왕인 선조가 지방 상소

문을 근거로 일으킨 임진왜란 직전의 기축옥사(己丑獄死) 속칭 ‘정여립의 난’도 ‘적(敵)패거리 죽이기’의 하나였다. 정여립이 급진적인 동인(東人) 몇 사람들과 뜻을 같이하고 승려·천민·평민을 모아 죽도(竹島)에서 대동계를 조직했다가 ‘역적모의했다’는 상소로 고발되어 동인 선비들이 희생된 이 사건은 당시 서인(西人) 정철·송익필이 선조의 특명으로 동인 선비들에게 거짓으로 죄를 강요해서 적(敵)패몰이한 옥사사건이었다.



6공화국 탄핵·특검폭주 임진왜란·당쟁의 판박이 류성룡의 징비록 ‘귀감’

이 사건은 당시 잘못을 주장하는 상소·서신·전기 등 62건 문건이 <대동야승> 등에 실리고 호남 사학자들이 이 사료를 근거로 기축옥사의 부당함을 폭로한 논문이 발표되어 허구로 밝혀지고 있다.

임진왜란 직전 외적 침입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고 정여립 등 선비들을 내란으로 몰아 죽였던 선조는 임진왜란 중에도 가짜뉴스(상소)로 왜적과 싸우고 있었던 의병들을 내란 수괴로 몰아 괴롭혔다. 선조는 임진왜란 최고의 공훈자 이순신을 삭탈관직하고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왜군을 최초로 격파한 신각장군을 거짓 정보에 따라서 참수했다. 일본군이 두려워했던 김덕령, 이산겸, 광재우 의병장들도 내란 혐의로 죽었다.

가짜뉴스 상소문에 근거해서 이른

바 ‘내란세력’을 박멸한 왕이 앞장선 사화·당쟁은 연산군, 숙종, 고종만이 ‘적(敵)패거리 죽이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영조, 인조, 광해군도 그랬고, 정조도 당파싸움에서 초연하지 못했다.

기축옥사(己丑獄死)식 ‘적(敵)패몰이’는 선조의 부조리로 끝나지 않고 인조반정(1623년), 현종시대 예송논쟁(1659년·1674년), 숙종시대 환국(換局)등으로 지속됐다. 4세기에 걸친 ‘오로지 내편’만이 최우선인 극단의 배제와 폐쇄 정치로 조선은 상식·정의·공정의 윤리는 물론 인재를 씨 말리고 국가기능도 상실했다. 그래서 ‘백성의 나라’도 ‘양반 선비의 나라’도 아닌 ‘그들만의 나라’일 뿐이었다. 조선이 망한 후 박은식·정인보·신채호 등 양명학자 언론인들은 당쟁과 당쟁 도구로 전락한 조선의

성리학 이데올로기를 망국의 원인으로 꼽고 비판했다. 신채호는 192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浪客(허랑하고 실속 없는 사람)의 신년 만필>에 “무슨 ‘주의’(主義)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라고 성리학의 노예가 된 조선 지식사회를 질타하고 반성했다. 백암 박은식도 <한국통사>의 ‘역사의 대개’에서 “허문(虛文-유학)만 숭상하고 융정(戎政-군정)을 폐(廢)케하므로 국력이 쇠약하게 되었다”며 당쟁과 외척으로 나라가 어지럽혀졌다고 조선의 지식풍토를 비판했다.

사화·당쟁으로 얼룩진 조선정치를 정리하지 못한 ‘역사학의 나태’로 정적을 내란 수괴범으로 모는 당쟁의 ‘적패몰이’가 21세기 제6공화국에서 정적 제거 악습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사회과학자들은 지적한다. 당쟁 악습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정치의 모순은 전근대 역사인식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 지체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성의 소리가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다.

임진왜란 10년전 율곡이 젖내 나는 어린아이까지 국정 시비에 끼어들어 만석을 실은 배가 풍랑에 맡겨진 상태라고 한탄했던 조선의 ‘망국조짐’과 집단이익을 위해 헌정질서도 가볍게 보는 2025년 한국정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지식인들은 걱정한다. 양승함 전 정치학회장은 “이른바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은 사회 균열 구조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으며 배제·반란·반동·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이런 정치는 투쟁과 대립을 증폭시켜 사회 분열과 정치 불신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류성룡의 징비록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 백성이 왜군과 명나라 군사에 시달렸으며 외적에 대항했던 군·의병·관료들도 선조가 무고한 사람을 의심해 반란 괴수로 처형하는 이른바 <적(敵)패몰이>에 시달렸음도 고발했다. 6공화국 정치 모순은 선조의 실수를 거울 삼아 징비(懲毖)해야 할 것이며, 언론은 이 시대 모순을 류성룡처럼 엄정하게 기술해서 역사의 거울로 남겨야 할 것이다. ㉞

이재명 ‘시장주의 정부’ 어디로 가나?

대통령 ‘친기업’ 행보...민주당은 ‘반기업’ 입법



배병휴
전 매일경제 주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민생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비상경제 점검 TF를 직접 주재하면서 생활물가 잡기, 내수진작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재래시장 방문, 5대 그룹 총수 및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거래소를 찾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대선 과정의 경제공약들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집권 플랜 과정에서부터 경제 최우선, 분배보다 ‘생산 위주’를 내세우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삼성이 잘 돼야”라며 어느새 좌파이념, 반재벌의 기존 이미지를 세탁한 듯 보였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박정희 정책(보수)이든 김대중 정책(진보)이든 필요하면 다 이용하겠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선언했다.

바로 경제계가 오래전부터 듣고 싶어하는 약속이었다. 그렇지만 ‘이재명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회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종래 기존 이미지에 비해 파격적인 변화에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불신과 우려도 겹쳐 ‘거의 반반’이라는 관측이다.

‘거야’에서 금방 ‘거여’로 바뀐 민주당의 오랜 정책 노선이 반재벌, 친서민이다. 이 대통령의 기본 정책 브랜드가 ‘기본사회’, ‘기본소득’이며 노사문제에서는 뚜렷한 친노동 편향이다.

이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 TF회의서 추경 편성 속도전을 당부하며 특별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 회복 보편적 복지 지시가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는 곧 이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이 담긴 기본사회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제2차 추경은 보나마나 대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이 야



당일 때 자체 추경안으로 34조 7천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중 여야 합의로 1차 필수추경 13.8조 원을 처리한 사실을 감안하면 2차 추경은 20조원+α로 예측된다.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테니 또 국가채무가 크게

그러니까 기본사회에 대한 정치적인 이런저런 비판과 논란이 있지만 기본사회를 향해 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으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세계선도 경제강국’, 가계 및 소상공인 등 활력 증진을 위한 ‘공정경제’, 아동, 청년,

이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피해를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해 가면서 보상해 줬지만 우리는 대출 지원만으로 부채만 잔뜩 키웠다면 이제 부채 조정 및 일부 탕감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한다. 부채 탕감은 성실히 상환해 온 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압박을 통해 법원마저 굴복시킨 형국으로 비치니 국가 3권을 지배하듯 ‘힘센 정부’로 비친다.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주장했지만 집권당은 반(反)자본, 반(反)시장 입법을 강행하려는 태세

부채탕감과 현금살포 정책의 허실 내포 파격적 변화 기대 vs 불신과 우려 ‘반반’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걱정으로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주저한다면 ‘무식한 바보’라고 지적하며 아직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여유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란 탄생에서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보장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정책 틀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이 모두 국가책임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실 조직개편에도 이 같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아래 국정기획비서관에 기본사회 설계 주역으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또 정책실장 아래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 재정확대 역할론자인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수석 자리는 ‘경제성장수석’으로 개칭하여 ‘성장담론’ 제공자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어르신 모두 잘사는 나라로 요약된다. 이는 곧 기본사회의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공약으로 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연간 소요 예산은 7.1조 원, 5년이면 35조 5천억 원이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기업과 정부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 지원, 총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연간 소요 예산은 최소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노령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연간 소요 예산 3조 원, 5년이면 15조 원이다. 또한 노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보 급여화 약속도 15조 원 상당이다. 또한 코로나 비상사태 시 소상공인, 자영업 등에 지원한 대출금의 부채 조정, 일부 탕감 약속도 매우 벅찰 것으로 우려된다.

이다. 경제계가 그토록 강력 거부해 온 상법 개정안을 더욱 강화된 법안으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물론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제1 노총인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하면서 노랑봉투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및 임금삭감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도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활발한 경제행보를 보이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약속하지만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 기대와 함께 실망, 우려도 거의 반반 수준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③①

“한미동맹은 휴전협정과 무관한 미국의 의무”

세계의 눈이 서울 경무대 이승만의 입술만 지켜본다. 공산진영도 자유진영도 한국전쟁의 진로가 그의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에서 3년째 질질 끌던 휴전협상도 개점 휴업, 이승만의 ‘대답’만 기다린다. 즉, 기막힌 전략가 이승만은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함으로써 세계의 전쟁 해게모니를 한손에 틀어쥐는 것이었다. 1953년 6월25일부터 약 3주일간

한국대통령 이승만이 미국대통령 특사 로버트슨과 벌인 1대1 협상은 사상 최초의 이념전쟁을 벌여온 세계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마지막 담판, 그것은 ‘동상이몽’ 결투였다. 이승만의 목적은 ‘한·미동맹’이요, 미국의 속셈은 ‘휴전동의’ 확보, 숨가쁜 ‘경무대 협상 드라마’에 각국 정부와 언론이 일희일비 진땀을 흘린다.

대한민국 國父
이승만

31) 한미동맹 ①

◆이승만의 휴전 동의냐? 미국의 한·미동맹 체결이냐?

이승만은 휴전반대 때부터 “한·미동맹은 휴전협정과 전혀 무관한 미국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왜냐하면,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1905년 조선을 일본에 내주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조약파기’와 ‘분단’으로 한민족을 두 번 배신하였다고 몰아붙였다.

“그리고도 이번에 일방적 휴전을 강요하니 이것은 세 번째 배신이다. 기독교국가 미국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국가 한국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 미국은 사죄하라. 한·미동맹 체결로 과거사의 과오를 보상하고 미국이 분단시킨 한국을 통일시켜라.”

이승만은 로버트슨과 악수하자마자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훈계와 역사교육부터 시작한다.

◆이후 날마다 12차례나 계속되는 경무대 회담은 안개 속의 암투, 당시 언론을 보면 침묵회담, 오리무중 대화, “발표할 것 없다”는 등, 경무대 앞에 진을 친 보도진은 ‘모두 지쳤다’는 기사만 쏟아낸다.

로버트슨도 지쳤다. 한가지 쟁점에 합의하면, 이승만이 새 요구를 내놓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승만은 ‘합의 항목’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오라”고 했다. ‘배신자 미국’을 믿을 수 없으니 명문화하여 미국대통령이 친필서명한 문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로버트슨이 결재를 받아오면 이승만은 전혀 다른 문제를 꺼내 또 합의하라고 다그친다. 회담 닷새만에 로버트슨이 본국에 이런 보고서를 보낸다.

“이승만은 상황판단이 빠르고 지략이 넘치는 상대이며, 자기 나라를 국가적 자살로 몰고갈 고도의 비논리적 광신자이다…휴전협정은 공산주의자들의 계책이며, 자신이 미국과 우방의



▲이승만 대통령(가운데)이 1953년 여름 한·미동맹 협상중 델레스 미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슨 차관보(오른쪽)를 경복궁에 데려가 한국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동맹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비난 대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여론에 좌우되는 인물도 아니다. 이승만은 그의 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력한 반공투쟁 승리의지로 무장시켜 놓았다…”

언론들도 ‘경무대 휴전회담’을 보도하며 이승만의 ‘찬성’을 독촉한다.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 적의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혼자서 세계 양대진영의 협공에 사면초

은 눈을 뜰 줄 모른다. 그렇게 3시간 넘게 흘렀다. 뒤늦게 나타난 기자들의 질문에 비서가 답한다. “잉어 몇 마리 낚았습니다.”

◆7월12일 마침내 한·미공동성명이 나왔다. 한·미방위조약 체결에 합의했다는 공식발표였다. 그러면 휴전협정은? 경희루 낚시 그날 밤 번민을 거듭하던 이승만은 타이프를 쳤다.

“한국은 휴전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을 방해하지는 않겠다” 로버트슨의 손에 쥐어준 단 한 줄의 메모 내용이다. 끝까지 ‘통일의 길’은 양보 안한 이승만의 전략, 7월 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에 불참, 서명도 하지 않는다. ‘단독북진 통일’이란 허풍이 아니다. 언젠가 한·미동맹의 힘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리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이승만은 북한동포에게 먼저 성명을 발표한다. “애국동포여 실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북한을 잊지도 않고 모른체 하지

‘경무대 회담’ 美특사, 본국에 동맹체결 재촉
1953년 7월 이승만, 휴전협정엔 동의 안해

그러므로 미국은 이승만의 그같은 고귀한 정신과 의지를 파괴해선 안될 것이며 “미국을 위해 몹시 필요한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한 로버트슨은 오히려 본국에 동맹체결을 재촉하게 된다.

◆휴전협상을 중지하고 이승만의 ‘휴전동의’만을 학수고대하는 공산권도 초조하다. 모스크바와 북경의 방송과 신문들은 미국을 조롱한다. “약소국의 꼭두각시 늑대는 하나 다를 줄 모르느냐”면서 “미국의 괴뢰 이승만은 상전이 시키는대로 당장 휴전에 찬성하라. 안그러면 당장 휴전회담을 재개하여 협정에 조인하자”고 미국편을 응원하기에 이른다. 미국, 영국

가 ‘1인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격이다.

●경희루의 잉어낚시 3시간=로버트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이승만은 그러나 일생일대의 딜레마에 빠진다. 한·미동맹 체결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미국의 전제조건 ‘휴전동의’를 어찌 할 것인가. 매일 회담 2주일째 7월8일 이승만은 경희루 연못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길을 가르쳐주소서” 해방 분단 이래 결심한 ‘통일염원’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생명을 바쳐도 용납 못할 분단, 지구가 깨져도 포기 못할 민족통일, 노안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낚시대가 흔들려도 이승만

도 앓을 것이요, 통일의 그날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델레스 국무장관이 달려와 마지막 담판 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된 것은 8월8일, 이 대통령은 또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은 대대로 복락을 누리리라”

두 달 후 10월1일 워싱턴에서 한·미조약이 공식조인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발효되기까지는 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산처럼 쌓여있다. <계속> ㉠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방패’ 사라진 ‘노랑봉투법’ 거침없다

민주당, 대선 이틀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전의식
편집위원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하면서 크게 주목받는 법안이 있다. 거대 야당에서 공룡 여당으로 위치가 바뀐 더불어민주당이 노랑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논쟁으로 표류했으나 대선 승리 이틀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양곡법 개정안을 세 번째로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과 함께 보수 진영의 반대로 입법화가 좌절된 노랑봉투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랑봉투법이란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내놓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별칭으로 지난 2023년 11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가결되었으나 당시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만의 입법 강행이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되돌려 보냈고 지난해 8월 본회의에서 재차 의결됐으나 대통령은 두 번째 거부권을 발동했다.

그동안 국정에 대한 견해가 다른 진보 국회와 보수 대통령이 각각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 형세였으나 정권이 바뀐 이제는 2개의 법안 모두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재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노랑봉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는 법안이니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식 이름보다 ‘노랑봉투법’으로 더



유명해진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조합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과거의 월급봉투를 연상케 하는 노랑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도 노동기본법 강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된다고 주장해 왔다.

우선 노랑봉투법이 차후 법제화되면 현재의 노사관계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소형 플랫폼의 특수고용 종사자, 택배, 퀵배달 등 하청 근로자의 노동단체 가입이 대폭 늘어나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보인다. 따라서 자칫하면 하청노동자 권리 확대와 기업 부담 증가가 수시로 충돌하여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우려

른 작물 지원제도 등이 담겼다. 주된 내용은 쌀보리 같은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양곡 가격이 공정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주고 폭등하면 정부가 보유한 정부관리양곡을 시장에 판매하여 식량 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만들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쌀 생산 확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일으키게 된다”며 반대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 법을 원안대로 개정하면 2030년대 정부의 쌀 구매액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개정안을 살펴본 전문가도 양곡법이 자칫하면 농업의 기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경계했다. 양곡 가격안정제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보조금축소 등에 어긋나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양곡 생산량이 정부 예상량을 초과한 과잉생산이 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차액 지급 예산, 의무적으로 구매한 정부 양곡의 보관

하청근로자 노조가입 봇물…파업 일상화 우려 양곡법 통과땐 쌀값 하락…양곡 재정부담 가중

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랑봉투법도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가 되었으나 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듬해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었으나 재차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들 법안 개정은 민노총, 전농련 외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찬성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사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도 축소되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가중

도 있다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산지 쌀값이 20%나 폭락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래서 이듬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 양당의 접근 논리가 크게 다른 데다 이해 당사자들인 국민 간의 찬반 주장도 치열해 법제화되어도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쌀값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다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노동자, 농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영 안정성 모두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몇 년간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을 일으켜온 노랑봉투법과 양곡법 개정 열차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거침없이 내달려 종착역에 닿을 것이다. 그 안에 어떤 승객이 타고 있는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마중 나온 사람들은 ‘우리 편만 아니라 다른 편의 고충도 들어주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승객이 하차해 주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

예술인 그 삶과 예술혼 ②5-〈끝〉

작가주의 리얼리즘 유현목 감독 ②

영상통해 인간의 본질 실존적 삶 표현

유현목을 사고하는 리얼리스트라고 하지만 한 예술가를 규격화된 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당사자의 예술적 자유와 작품의 넓은 스펙트럼을 속박하는 위험이 따른다. 유 감독의 감독 편수는 50편이지만 그 안에는 문예·반공·종교·역사·코미디뿐만 아니라 영화 ‘춘몽’(1965년)에서는 독일 표현주의 형식으로 사디즘과 마조히즘을 다루는 과격적인 시도를 했다.

유현목의 넓은 작품 스펙트럼과 투철한 작가정신은 때로 제도와 규범 그리고 그 시대 도덕과 충돌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오발탄’은 사전 검열을 받고 대사를 삭제 수정당하기도 했으며, ‘춘몽’은 외설죄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후배 감독 이만희의 ‘7인의 여포’가 반공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품을 옹호하는 증언에서 “반공이 국시냐? 자유가 국시여야 한다”고 말해 반공법에 연루된 적도 있었다. 유현목이었기에 피할 수 없는 수난이었다. 그래서 유현목의 작가정신은 두고두고 빛났던 것이다. 유현목은 세속적 유행이나 상업 성향행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시대를 관통해 실존적 삶으로 표현했다. 유현목을 한국영화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리얼리즘 거장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현목은 반공영화 황순원 원작의 ‘카인의 후예’(1968년)를 감독하면서 현실과 실용적인 타협의 여유를 보이며 시야를 넓혀간다. 이런 유 감독의 행보는 ‘장마’(1979년)에서 한 층 인간적인 얼굴로 분단의 문제를 고뇌하며 해소한다. 전쟁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두 가족의 갈등으로 재현했다. 이데올로기 갈등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휴머니즘으로 치유되고 그 자리에는 분단의 역사를 살아야 하는 남은 이들의 유산으로 남는다. 또 검열을 피해 코미디로 당대의 계몽성을 지향했다.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을 핵 가정으로 분화하는 과정으로 이끈 ‘공처가 3대’(1967년)는 주도권을 쥐여주자들과 그 기세에 눌려 찢어지는 남자들이 공모해서 대항하는 성대결 양상으로 번져나간다. 기세등등한 여자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거나 뒤에서 딴 짓 하는 남자들의 비겁한 이중성을 마침내 성대결로 희화화하면서 코믹 영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코믹영화로



유현목의 1965년 작 《춘몽》 촬영현장.

는 ‘특급결혼작전’(1966년)과 ‘몽땅 드릴까요’(1968년) 2편이 더 있다. 진지하다는 유 감독은 의외로 코믹영화에 재능을 보였다.

1960년대 문제 3부작 중의 하나인 ‘잉여인간’은 손창섭의 원작을 1964년 감독했다. 출연은 김진규 신영균 도금봉 김석강, 제작은 한양영화사였다.

남우주연상(김진규),여우조연상(황정순),미술상(박석인),흑백촬영상 등 상을 휩쓸었다. 제12회 아시아영화제에도 출품됐다.

유 감독의 영화는 흥행과 인연이 없다고 하지만 성공한 작품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다. 광산촌의 소녀가 장 말숙의 일기장이 단행본으로 출간

을 동원하고 고속촬영, 화면합성, 미니처 촬영 같은 특수효과까지 총동원되어 기대를 모았으나 흥행은 참패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사회문제와 종교를 결합시킨 작품들에 열중했는데 김은국 원작 ‘순교자’(1965년)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1980년)이 대표작이다.

유현목은 1925년 7월 2일 황해도 봉산군 사원면(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9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도자기점과 전당포를 경영했고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위로는 어릴 때 모두 죽고 5남매만 생존했다. 어려서부터 내성적으로 자랐다. 덕성공립보통학교와 휘문중을 나왔다. 어린 시절부터 화가, 바이올리니스트, 무용가 등 예술가가 꿈이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1946년 단신 월남, 동국대 국문과에 진학하면서 연극에 심취했다. 1947년 동국대 영화예술연구회를 창립하고 활동했다. 국립도서관의 ‘시나리오 강좌’를 수강하면서 프랑스 피에르 슈발 감독의 ‘죄와 벌’을 열 번 보고 영화에 꽂혔다. 영화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조

1964년 ‘잉여인간’ 청룡영화상 6개 부문 수상 반공·종교·역사·코미디 등 다양한 주제 다뤄

가족들의 생계도 꾸려가지 못한 주제에 입만 열면 애국애족을 부르짖는 사내,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는 사내, 돈 욕심 없이 고지식하게 원칙대로만 진료하는 치과의사 등의 인간군상이 병원대기실에 모여 늘어놓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 사내들 주위에 있는 여인들과의 연정을 내용으로 한 영화다. 얼핏 보면 실패한 인간들의 세상에 대한 절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지극히 피상적이다. 인간본연의 자세에서 보면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비분강개의 단순한 영역을 넘어 통렬한 사회비판이기도 하다.

‘잉여인간’은 ‘오발탄’과 달리 흥행도 성공했고 제4회 대중상에서 편집상(유재원) 신인상(김석강)을 수상했다. 제8회 부일영화상에선 작품상·감독상과 신영균 태현실이 남녀 조연상을, 홍동혁이 촬영상을 수상했다. 제2회 청룡상에서는 작품상·감독상·

되어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뿔뿔이 헤어졌던 4남매가 다시 모여 살게 된다는 가족애를 그린 ‘구름은 흘러도’와 연상의 바 마담과 연하 남자와의 열정적 사랑을 담은 ‘아낌없이 주련다’, 약국집 네 딸의 각자 다른 인생을 그린 박경리 원작의 ‘김약국 집 딸들’은 흥행에 성공했다. ‘김약국 집 딸’은 제11회 아시아영화제에서 비극상을 수상했으며 ‘구름은 흘러도’는 제10회 베를린영화제와 제8회 시드니영화제에 출품됐다.

유 감독의 유일한 역사극인 ‘성웅 이순신’(1962년)은 정부의 엄청난 지원에도 흥행은 참패했다. 총무공기념 사업회와 세연영화사기 공동기획한 이 영화는 1959년 10월 2일 크랭크인해 2년간의 긴 촬영과 정부지원 등 엄청난 제작비를 들었다. 공보부 영화금고의 첫 수혜작으로 제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엑스트라 2만 명, 선박 2백여 척

정호 감독의 ‘김상옥 열사’배우모집에 응했지만 낙방했다. 그러나 조감독이 필답시험이 1등이어서 조감독을 권유해서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임운학 김성민 정창화 이규환 조감독을 거쳐 1956년 ‘교차로’로 감독에 데뷔했다.

1976년 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부임, 1990년 정년까지 후진양성에 힘썼다.

백발홍안에 빨강 티셔츠가 트레이드 마크. 별명은 유핏대. 1980년 한국영화 초창기부터 광복직전까지 영화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발달사’를 썼다. 마지막 작품은 ‘엄마와 별과 말미잘’(1995년). 2007년 뇌경색을 앓은 후 당뇨까지 겹쳐 2009년 6월 28일 사망했다. 향년 84세. 부인은 목공예의 대가 박성삼의 딸인 화가 박근자. 2009년 금관문화훈장. 슬하에 자녀는 없다. ㉠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특파원 수첩 런던 ③

쫄 대통령, 밀실서 연설 뒤 자리 피해

참석한 영국제인·한국 재벌 총수들 어안 병병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전두환 대통령의 런던 방문 두 번째 날, 그러니까 1986년 4월 8일 오후, 그는 영국 경제인연합회(CBI)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한국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여명의 영국 기업인들이 시내 중심부,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연합회건물 2층에서 전 대통령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리셉션과 마찬가지로 홀 한 구석에서는 칵테일이나 맥주 등 음료수가 제공되고 한국에서 온 재벌 총수들과 기업인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건물 밖 한쪽 길가에서는 “개를 먹는 나라, 올림픽 보이코트를”, “독재자 추방하라” 등의 피켓을 든 청년 10여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88년서울올림픽을 2년여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마침내 리셉션장에 도착한 전두환은 커다란 홀 한구석 칸막이가 되어 있는 조그마한 준비실로 들어갔다. 모두가 영국 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담소라도 나누는 뒤 나와서 스피치를 하고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또 웬일인가. 준비실 안 마이크에서 연설이 흘러나왔다. “친애하는 영국 기업인 여러분,” 통역이 이어졌다.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의례적인 내용. 20여분 간의 연설이 끝난 뒤 전 대통령은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눈치 못한 채 자리에서 사라졌다. 밀실 속에 숨어서 연설한 뒤 종적을 감춘 것이다. 악수를 하기는커녕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칵테일 한잔 나누는 일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으로 리셉션은 끝. 영국 기업인들은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다. “저러려면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불멘소리가 영국 기업인에게서 터져 나왔다.

17명 목숨 잃은 아웅산 악몽 못 벗어나
청와대는 그만큼 대통령 경호에 온



전두환 런던방문에 맞춰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청와대경호실 ‘아웅산사건’ 악몽에 전전긍긍 교민들 리셉션 앞두고 과잉경호 불평 쏟아져

통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3년 전 미얀마 아웅산 사건의 악몽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983년 10월 미얀마 양곤을 방문한 전두환이 그 곳 국립묘지 아웅산에 도착하기 직전 북한 공작원들이 몰래 장치한 폭탄이 터져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던 아까운 인재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지 않았던가? 그 때 희생자는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 김동휘 상공, 서상철 동력자원부장관과 함병춘 비서실장, 김재익 경제수석 등 무려 17명.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현 기자도 젊은 나이에 산화했다.

그러나 전두환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럽 순방은 절체절명의 절실한 일이었다. 박정희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교묘하게 이용, 정권을 거머쥐었을 뿐 아니라 광주학살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그로서는 국제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서독,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4개국 순방 중, 첫 번째 나라로 영국을 찾은 것도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 다음에 무너질 독재자가 누구?”

그러나 영국 입장에서는 그의 방문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군

사 독재 국가의 수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 타임스>지는 전두환 도착 사흘 전에 ‘한국 대통령, 마르크스 운명을 피하기 위한 유럽 방문’ 제하에 “서방 정상들과 담소하는 TV화면이 한국에 방영됨으로써 자신이 서방 지도자들에게 존경받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데이 타임스>지는 필리핀의 마르크스 다음에 무너질 독재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고 피노체트(칠레), 지아(파키스탄) 다음으로 전두환을 꼽았다.

“그렇게 오고 싶다면 ‘비자를 보여 달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선데이 타임스>지의 스콧 플러머 기자가 영국 정부의 분위기를 나에게 전해 주었다. 어느 영국 기자는 본 특파원에게 ‘가족 여행’ 오느냐고 물을 정도였다. 갓 결혼한 만아들(전재국) 부부까지 대동, 원저 성으로 데려가 엘리자베스여왕과 오찬을 함께 하도록 한 것에 대한 비아냥이다.

예행연습, “반지 끼지 말고, 핸드백 들지 마라” 지시

당시 청와대가 전두환의 경호에 얼마만큼 신경 썼는지는 도착 당일 교민 리셉션을 앞두고 하루 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년에 한번 매년 6월 중순이면

국제대회가 열리는 윈블던 테니스 클럽. 그 유명한 테니스의 성지 연회장에 런던에 거주하는 교포 200여명을 소집, 다음날 있을 전두환과의 면담 때 주의 사항을 시시콜콜 하달했다. “반지를 끼고 오지 마라, 여인네들도 핸드백을 들고 오지 마라, 악수할 때 손을 살짝 잡아라. 묻지 않는데 말을 먼저 걸지 마라.” 등등 주의 사항은 왜 그리 많던지. 교민들의 불평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영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날 아침 또 조그마한 해프닝이 일어났다.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전 대통령이 코트를 입으려고 찾으시니 이걸 누구도 챙긴 사람이 없었다. 알아보니 대사관저에 그대로 두고 온 것. 연락을 받은 박영수 교민회장이 급히 코트를 공항에 가지고 갔으나 비행기는 이미 출발, 박 회장은 하는 수 없이 다음 행선지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들고 갔다.

전두환의 영국 방문은 일정 조정이나 누가 마중 나오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교민들 앞에서 인사할 때 올라서는 발판의 높이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소소한 문제까지 영국 정부와 수많은 실랑이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지만 과잉 경호 속에서 술한 추태와 독선으로 점철된 3박 4일이 었다. ㄸ

한수원 ‘블루오션’ 원전해체시장 노려야

경제 포커스

트럼프 구상에 美원전설비 확대 ‘관심의 핵’

한때 진보정권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원전산업(K-원전)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질 효자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등 기존 먹거리 산업의 뒤를 이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코에서의 원전수주, 태국에서의 소형모듈원자로 양해각서 체결 등 원전 관련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미국에서 대규모 원전건설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일부 원전 관련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체코에서 26조 원 규모 원전 수주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있는 원전 수주 소식은 체코에서의 대규모 신규원전 최종 계약 건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최근 총 26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전자문서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 보류를 명령한 체코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수원은 당초 발주사인 EDUII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서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EDF는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다. 이 때문에 지난달 7일로 예정됐던 서명식 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EDUII는 “계약 지연으로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 일정이 위태롭게 됐다”며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수원 역시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내고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맞섰다. 이후 보름 만에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수원과 EDUII가 곧



체코 두코바니 마을의 원자력발전소 냉각탑 모습.

바로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

니 지역 1천M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기술·상업 협상을 거친지 약 9개월 만이다.

한국은 한수원,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지빌리티, 대우건설 등으로 ‘팀코리아’를 결성, 수주 전에 뛰어들어 지난해 4월29일 체코 정부에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경쟁상대인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을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 원)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입찰 성공으로 한국이 중동에 이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지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체코와는 별도로 최근 태국 국영 전력 공기업인 태국전력청(EGAT)과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

현장 견학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실무진 협의체(Working Group) 구성 등에 합의했다.

미국시장을 잡아라...미국,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 4배 확대

미국이 2050년까지 자국의 원자력발전 규모를 현재의 4배로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미국 원전시장이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잘 하면 한국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 규모를 현재 97GW에서 400GW 수준까지 4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에너지부는 대형 원전 10기 건설비용을 750억 달러(약 100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댄 섬너 웨스팅하우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풍부한 원자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트

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현재 역량으로 보아 미국 시장 독식은 어려울 것이라 의견도 많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30여년간 미국내 원전기술이 중단되면서 신규 원전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당 수조 원의 건설비용이 드는 대형 원전 설계부터 시공·운영까지 해낼 수 있는 원전 수출국은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7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러시아(로사토크)와 중국(중국핵공업집단·CGN) 등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미국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다면 한국, 프랑스, 일본의 기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자산업’ K-原電, 체코와 26조원 수주 태국 이어 美와 대규모 원전건설 계획

‘원전해체’ 섹터는 ‘블루오션’...향후 시장규모 500조 원 예상

원전건설 못지않게 원전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블루오션’이 있다. 전세계 원전 해체 시장규모는 2050년 500조 원이 예상되는 등 거대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영구 정지된 원전 209기 중 단 21기만 해체가 완료된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연평균 3.9조원 규모의 원전해체 시장은 개화기를 거쳐 급속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원전해체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이유다.

체코 원전 수주 성공으로 유럽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한수원은 이제 미국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 치도 망설임없이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동-서양의 만남 ‘울타리 없는 박물관’

**튀르키예
이stanbul 탐방기**

2025년도 PATA 관광정상총회 열려

2025년도 PATA 관광정상총회(PATA Annual Summit Conference)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끝없는 인류의 지혜와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미래’ (Timeless Wisdom for Sustainable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튀르키예 제 1의 도시 이스탄불에서 개최됐다. 이스탄불이 어떤 도시인가? 2천년이 넘는 역사가 도도히 흐르는 도시,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며 가교 역할을 한 도시, 연 6천만 명의 관광객이 거쳐 가는 관광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이다. 2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히타이트, 아시리아 등 고대 오리엔트 문명부터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등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동서양 문명이 함께 살아 숨쉬는 ‘울타리 없는 박물관’이 바로 이스탄불이다. 이런 이스탄불 시내의 명문 CVK Park Bosphorus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세계 관광정상총회가 개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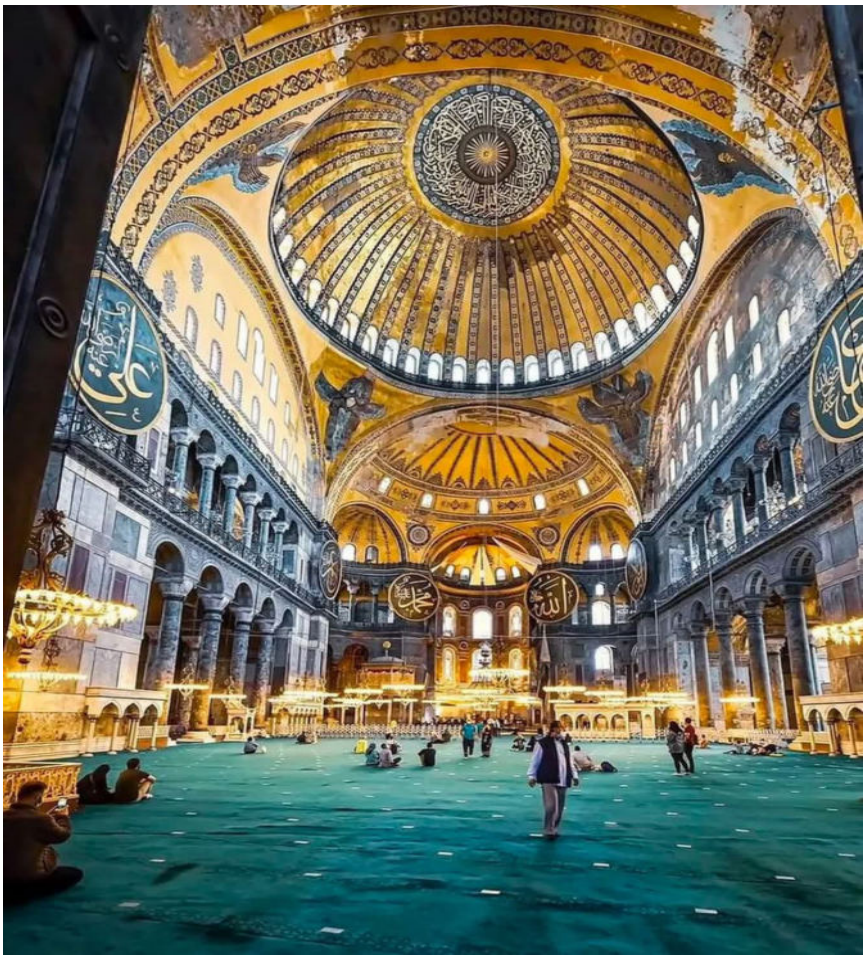
소재필 순회특파원
Travel 편집국장/발행인

1951년 하와이에서 창설된, 국제관광기구인 PATA(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 대한민국 1963년 회원국 가입)의 74년 역사 이래 최초로 동서양을 잇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5 총회에는 PATA 60여 회원국에서 관광장관, 관광공사 사장, 관광시장 개발 전문가, 관광대학의 유명교수와 석학, 그리고 미디어 등 관광·레저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총회에선 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과 크게 요동치는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주제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PATA는 ‘2030년 관광발전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이번 이스탄불 총회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제시했다. 그리고 회원국 간 관광관련 산업의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과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의 지



속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보호와 문화유산의 보호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이스탄불 11시간 20분 비행시간



성 소피아 성당(모스크) 내부.
기둥이 없는 15층 높이의 돔의 건축기술과 양식이 경이롭기만 하다.

튀르키예, 지난해 6천만명 관광객 유치
세계 관광 선진국으로 우뚝 서

튀르키예 국영관광공사(Turkiy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Agency=TGA)와 터키항공(Turkish Airlines=TK)이 후원한 2025 PATA 총회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한 터키항공의 이스탄불 행(TK0091), 350석 규모의 항공기(B-777-300-ER)는 한 석의 여유도 없이 초만원으로 한국인 승객이 절반은 넘어보였다. 두 번의 기내식사와 와인, 음료서비스, 그리고 3번의 취침과 기상에도 항공기는 여전히 비행중이었다. 서울(인천)~이스탄불 간의 비행시간은 11시간 20분 거리로, 거의 지구의 반 바퀴를 비행하는 여행이다.

도착한 이스탄불 국제공항은 연면적 7,600만㎡로 인천공항의 3.5배, 연간 9,000만 명의 여행객 수용과 하루 약 1,400편의 항공편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2018년 10월에 개장한 세계 최대규모의 공항이다. 2025년 4월 이후에는 3개 활주로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럽 최초의 공항이 된다. 이스탄불 공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공항이자 터키항공의 하버공항

이다.

도착한 입국장과 출국장 모두 이곳을 찾아온 전 세계 각국의 여행객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기준으로 6,000만명의 여행객이 찾은 관광대국이다. 지난해 2천만 명 유치 목표에 1,650만 명에 그친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

튀르키예는 UNESCO 세계문화유산등록 21개 보유국가로 이스탄불의 경우 ‘울타리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유적이 발길 닿는 곳마다 즐비하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서양의 접점으로 수천년간 수많은 왕조가 부침한 역사의 현장으로 곳곳에는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문명 등 인류가 이룩한 역사문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래서 튀르키예의 세계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인류문명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UNESCO문화유산으로 일찍이 등록되고 튀르키예 사람들의 사랑과 자존심인 아야 소피아 성당(Hagia Sophia Grand Mosque/‘신성



성 아야 소피아(모스크) 2층 코너에 일반관광객을 위해 개방한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 성화.

〈13면에 계속〉

튀르키예
이stanbul 탐방기

15층 높이 기둥없는 소피아 성당 ‘경이’

〈12면에 이어서〉

한 지혜’의 뜻)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여행객들로 1년 365일 입주의 여지가 없다. 15층 높이의 거대한 돔을 기둥 하나없이 지탱하는 놀라운 당시의 건축기술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성 소피아(튀르키예 어), 아야 소피아(그리스 어)로 불리며 여러차례 지진에도 버티며 온갖 풍상을 겪어온 소피아 모스크(성당)는 박물관으로 개장 85년만인 2020년 에르도안 현대통령의 명령으로 모스크 사원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개방했었는데 지난 1월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1인당 25유로(한화 약 3만6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stanbul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지구와 아시아지구로 나뉜다. 다시 골든혼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신시가지와 남쪽의 구시가지로 나뉜다. 구시가지에는 오스만 제국 전성기에 세운 톱카피 궁전과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그리고 아야소피아 성당, 세계 최대의 재래시장인 그랜드 바자르 등이 모여 있다. 신시가지에는 돌마바흐체 궁전과 탁심광장, 이stanbul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이stanbul 체류중 필자가 찾아간 탁심광장 인근에 있는 1895년 개관한 페라 팔레스호텔(Pera Palace Hotel) 411호실에는 아직도 세계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호텔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아가사 크리스티는 411호실에서 런던과 이stanbul을 오가며 유명 추리소설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집필했다고 한다. 이를 기념해 1층 로비에는 ‘오리엔트(ORIENT)’바가 있으며 객실 내에는 당시 사용하던 타이프라이터 1대와 그녀가 사용하던 일용품이 고스란히 전시돼 호텔 측이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2025 PATA 연차총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나영 장관정책국 사무관), 한국관광공사(조예지 국제협력팀 대리), 경상북도 도의회(이동업 경상북도 도의회 문화환경위 위원장),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김남일 사장), 경상북도(임채완 관광정책과장, 이원우 팀장), 경주시, 포항시, 한국여



성 아야 소피아 성당(모스크) 외관 모습.

팔레스호텔엔 英 추리 작가 크리스티 유품 전시 내년 PATA 총회, 경주-포항 공동개최지 선정

행협회(오창희 전 회장, 함수일 부회장, 이재희 부장, 노수정 주임), (사)공인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션협회(서은희 회장, 김영남 매니저)와 소재필 Travel Press 발행인 등 한국대표단이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외국대표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와 비즈니스를 위한 현지에서의 활동이 돋보였다.

일반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PATA 연차총회에는 각국의 정상급 인사(관광 및 문화장관, 관광공사 사장, 그룹 CEO 등)의 상위그룹이 참석, 포럼과 네트워킹(사교행사 등)을 통한 교류가 있게 된다. 한국도 앞으로는 대표 파견, 참석 시에는 이 점을 고려

하여 고위급 인사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51년 출범, 74년 역사의 국제관광기구인 PATA(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에 한국은 1963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65년 첫 번째 PATA 한국총회를 서울에 유치했었다. 이후 1979년, 1994년(서울), 2004년(제주) 그리고 2018년(강릉) 등 총 5회에 걸쳐 PATA 총회를 개최하여 한국관광의 위상을 세계 속에 떨치고 관광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놓았다. 특히 PATA는 한국의 관광산업이 열악하고 태동기였던 1960~1980년대 한국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반 기획과 자

문 등, 특히 경주 보문단지 개발사업과 제주 중문관광단지 조성 등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한국관광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 작업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PATA 연차총회 폐막식에서 그동안 소재필 PATA종신회원(Travel Press발행인), 오창희 PATA 집행위원(전 KATA회장)의 막후 활동과 그리고 경상북도 도의회,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경주시·포항시 등 관계기관 등이 관련 네트워킹을 통한 교섭과 물밑작업의 결과로 2026 PATA 연차총회 장소로 경주+포항이 선정된 것이 보람이라면 보람이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의 기틀 위에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선대들이 세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한 지 5개월, 오직 국민의 손으로만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고사리손의 꼬마 기부자부터 대통령까지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관을 적기에 건립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사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이 과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습니다.

모금 계좌 (예금주: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농협	301-0334-1185-31	국민	815601-04-182916
우리	1005-104-553918	하나	109-910035-23404
신한	100-036-637911	새마을	9002-2034-6284-4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김항식
고 문 | 박지만, 노재현, 김현철, 김홍업
추진위원 | 김군기, 김길자, 김명섭, 김석규, 박유재, 복거일,
손병두, 신영균, 신철식, 안병훈, 이영일, 이영훈,
이윤생, 이인호, 이장호, 이진만, 이창진, 인보길,
정용상, 조보현, 주대환, 한용외, 한화갑, 황성욱

#<건국전쟁>의 감동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액 100억 돌파!



*홈페이지 후원 환영 www.이승만재단.com

네이버, 구글에서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일한 공식 모금 기관입니다

* 후원자 예우 등을 위해 후원하신 후 이메일로 (donation@rheesyngmanfoundation.or.kr)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Syngman Rhee Memorial Foundation

문의 02.777.0391

암울했던 시대 희망없던 국민들 위로

1939년 백년설의 ‘번지없는 주막’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7〉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이 시대의 주막은 몇 번지인가. 1939년, 가수 백년설이 ‘번지없는 주막’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일제에 강점당한 나라의 설움을 ‘번지 없는 주막’으로 은유한 노래다. 해방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라고 탄식했다. 그 ‘번지 없는 주막’도 어언 8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였다. 집 앞에 문패도 번지수도 써놓지 않은 노랫말 그대로 ‘번지 없는 주막’이었다. 종이 찢가리에 주소를 적어 물어 물어 찾아가도 주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기 일쑤였다. 지금이야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일상 생활에서조차 잘못된 일이나 실수를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핀잔하고 놀리던 시절이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곳은 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꾸러/ 능수버들 휘날어진 창살에 기대여/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 ‘번지 없는 주막’은 추미림이 작사하고 이재호가 곡을 붙였다.

백년설의 본명은 이창민이다. 191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경해 한양 부기 학교를 나와 은행원으로 근무했다. 노래와 문학적 소양이 있어 유랑극단의 가수로 전향해서 1939년 ‘유랑극단’이라는 레코드를 내고 가수 겸 작사가로 활동을 했다. 감정을 넣지 않아도 감정이 들어 있는 구슬픈 음색이 고난의 시대에 걸맞은 가수였다.

‘나그네 설움’ ‘고향설’ ‘대지의 향구’ ‘두견화 사랑’ ‘눈물의 수박등’ ‘만포진 길손’ ‘산 팔자 물 팔자’ ‘경기 나그네’ 같은 아프고 암울했던 시대의 한을 노래해 희망이 없던 대중을 위로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던 우리 가요사 불멸의 가수였다. 남인수와 쌍벽을 이뤘다.

8·15해방 후에는 가수 활동보다 고아원을 운영하며 자선사업에 더 전념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다시 가수로 돌아와 1953년 ‘서라벌 레코드사’를 설립하고 1960년 가수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 3년 뒤, 1963년 7월 은퇴 공연을 끝으로 24년의 연예계를 떠났다. 은퇴 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경향신문의 일본 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인 심연옥과는 유랑극단에서 만나 1957년 결혼하고 남매를 두었다. 심연옥은 1947년 KPK 악단의 가수로 데뷔해 뮤지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악극단의 배우 겸 가수로 활동했다. 1950년 ‘투란도트’로 이름을 얻고 ‘카르멘 환상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악극의 여주인공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1952년 유행가 ‘아내의 노래’를 히트하고 ‘한강’ ‘시골 버스 여차장’ ‘도라지 맘보’ ‘전화 통신’ 등 시대



민족의 한을 대중과 함께 노래한 백년설. 그의 운명 또한 타국에서 -번지 없는 주막-이었다. 백년설의 아내 심연옥. 악극 -카르멘 환상곡- 등의 여주인공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 시대 삶의 풍경을 노래했다.

를 풍자한 가요를 클래식하게 노래한 지적인 이미지의 가수였다.

백년설은 197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족 이민을 갔다. 그리고 1년 뒤인 1980년 12월 뉴저지에서 66세로 생을 마감했다. 2002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보관장이 추서됐다. 그의 고향 경북 성주의 성밖숲

제는, 진중하고 복기하는 바둑을 두어야 한다. 평온하고 진중한 승부의 돌을 놓는 것이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평온케 하는 고수의 바둑이고 바람직한 정치이고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다.

선거철이면 가요무대의 유행가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유행한다. 다 아는 이야기가

노래가사 “어느 날짜 오시겠소 울던 사람아”

정치판 ‘협치와 통합’ 반드시 실현해야 돼

과 모교인 성주고등학교 교정에는 ‘나그네 설움’의 노랫말 현판과 노래비가 있다. 나라 잃은 설움을 탄식했던 그가 낯선 타국땅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 또한 안타까운 충격이었다. 심연옥도 2021년 10월 남편이 작고한 뉴저지에서 운명했다.

우리는 해방 뒤에도 많은 사연, 많은 고비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 여기, 이 시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는 오늘의 풍경은 사회는 좌우로 갈리고 정치판이 때로는 싸움판으로 변질되는 모습에 우울해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 정치도 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시대인지 모른다. 위중한 전선에서 마저 내전을 치르고, 어제까지의 자기 우물에 침을 뱉는 님비 현상이 지난 선거에서 본 우리 정치판 현주소의 한 단면이었다. “석유등 불빛 아래 마주 앉아서/ 따르는 이별주에 밤비도 처량꾸러”.

과욕은 때로 자신을 망각 속에 빠뜨린다. 이제, 2년이나 과속한 대선도 승패가 갈리고 새 열차가 출발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다. 모든 것이 빨리 가고 있다. 초고속의 속도위반을 체험한 정치판도 이

지만,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H.W.부시 후보를 이기는 데 역할을 한 슬로건이다.

잠시, 이 말을 빌리면, “바보야, 정치는 통합이고 협치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이런 대중의 마음을 알아채고 웅변한 후보자가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 정치, 정치인도 조금은 서글픈 유행가처럼 후회도 조금하고 ‘조금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순하고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은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됐다. “새끼손을 걸어놓고 맹세도 했건만/ 못 믿겠소. 못 믿겠소 울던 사람아”는 아니다.

오늘도 뉴스에 비친 사회, 정치판의 풍경은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의 원 에이 티켓이다. 협치와 통합은, 아직은 “어느 날짜 오시겠소”가 맞고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꼭 실행해야 할 숙제다. 이제, ‘번지 없는 주막’은 정치판의 형용사가 아니라 어둡고 괴로웠던 한 시대의 유행가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 [본문]

신대남(본회 회우·전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홍명보호, 전술의 세밀화 강화 급선무”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전문가들이 본 핵심과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의 결과가 달라진다. 아시아 3차 예선을 통해 홍명보(56)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장, 단점은 확실하게 드러났다. 1년 동안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술의 세밀함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6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승리한 뒤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부 경쟁 통해 약점보완”



김대길(58) KBS-N 해설위원은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는 전력이 강한 팀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세부적인 전술 운용을 더욱 강화해 본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디테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3차 최종예선에서는 공격진이 전술적으로 고립되는 시간이 많았고, 수비도 스피드에서 밀리는 모습이었다”며 “월드컵 본선과 예선은 차원이 다르다. 강한 경쟁 체제를 통해 공수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플랜B 멤버들의 실력이 크게 올라오면서 멤버 변화에도 전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전술의 숙련도 치중 필요”



한준희(55) 쿠광플레이 해설위원 역시 “전술의 숙련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상대 위험지역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공격 세부 전술 강화도 필수적”이라며 “이런 부분이 이뤄지고 기동력이 조화를 이루면 대

표팀 전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지션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 위원은 “과거에 비해 선수들의 풀이 좋아졌다. 어린 유럽 리거들이 늘어났고, K리그도 리그 자체의 활력이 올라오면서 이전보다 더 전력적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도 “관건은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전했다

“선수선발의 원칙 지켜야”



김재성(42)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은 “국내 선수들만 나설 7월의 동아시아컵 대회에서 해외파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파들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선수선발에 있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훈련 시간이 부족한 만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본선이 열릴 현지에 미리 가서 대회 기간 스트레스를 풀 휴식처 즉, 캠프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팀이 시설을 선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년 뒤 LA올림픽 대비 만반의 준비”

조용철 대한유도회장 단독 인터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단체전에서 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했고 남녀 헤비급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발돋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 뒤 LA 올림픽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따 한국 유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22일 귀국한 조용철(64) 대한유도회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한국 유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김하윤, 우승...34년 만의 패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소감은...

“여자 78kg 이상급의 김하윤(25·안산시청)이 일본의 아라이 마오를 꺾

고 우승한 것과 이 체급에서 동메달을 딴 이현지(18·제주 남녕고)의 입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하윤의 우승은 199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헤비급(당시는 72kg 이상)에서 문지윤이 우승한 이래 34년 만의 쾌거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지 또한 여자 78kg 이상급에서 김하윤의 대를 이을 가능성이 매우 큰 유망주입니다.”

-혼성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202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귀국한 조용철 대한유도회 회장.(사진=대한유도회 제공)

“2017년부터 신설된 혼성단체전에서 일본을 제치고 올라온 조지아(그루지야)에 이어 2위에 오른 것도 사상 처음이어서 축하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2018년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땀으나 이후 6년간 입상하지 못했는데 최대 고비인 8강전에서 프랑스를 꺾어 결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성단체전 1회전에서 몽골에 4대0으로 승리한 뒤 8강전에서 강호 프랑스를 4대3으로 따돌렸으며 혼성단체전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오른 조지아와 대결했으나 1대4로 역전해졌다. 혼성단체전은 남녀 모두 7명의 선수가 치르는 경기로 일본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8연속 우승했었다.

남녀 최중량급 세계 정상급 발돋움

-과거 경량급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국 유도가 최중량급(最重量級)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만...

“그렇습니다. 김하윤 이현지 등 여자 최중량급은 물론 남자 최중량급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민중(25·양평군청)입니다. 김민중은 작년 파리올림픽 100kg 이상급에서 은메달을 땀는데 이어 아부다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습니다. 김민중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따 세계 정상권 선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민중의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은 조용철 회장이 1985년 서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헤비급에서 우승한 이후 39년 만의 경사였다.

-3년 뒤 LA올림픽의 유도 메달 획득을 위한 대책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과는 정성숙(여자) 황희태(남자) 코칭스태프의 열정적인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세계선수권 여자단체전 우승 주역이었던 다나카 미키(38) 코치를 다시 기용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의 기량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워 2028년 LA올림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세·본회 부회장>

회우 광장

邪實과 진실...온라인의 잔인한 못매

(사실)



이향숙

본회 전 사무총장
수필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한 이유는 국힘이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추락해서 후보 혼자 고군분투했고, 사전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부정 선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보태서 본 투표 3일 전에 민주당측이 터뜨린 리박스쿨 댓글팀 공개 사건도 결정타였다. 이에 앞서 유튜브인 뉴스타파가 5월 30일 오후 7시에 특종이라며 리박스쿨과 김 후보가 협력해서 댓글단을 운영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리박스쿨은 리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관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친다는 우파 시민단체다.

정치 댓글단 원조는 8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문재인 후보와의 경선 전에 네티즌들을 모아서 2016년 10월 16일에 <손가락혁명군>이라는 자신의 댓글단을 만들기 위해 토크 콘서트(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후 7000여 명이 2017년 1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시장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하고 “문재인 물러가라”하고 외쳤다. 개딸이라는 신조어로 불린 그들은 이후 국힘은 물론,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을 수박이라고 부르며 공격하는 강성 지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제2시즌 부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뉴스가 채널A에서 보도됐다.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을 이용해 댓글 공작했다고 뉴스타파가 보여준 ‘2025년 5월의 댓글 교육 안내문’ 구석에 김문수 후보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이 진실인지 수사로 밝혀지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에도 온라인의 악성 댓글이 많다. 현재 파면 선고 후 8일간 관저에서 퇴거 준비하는데 “나랏돈 쓰며 빨리 안 나가고 버틴다.” “물을 너무 많이 썼다. 개 수영장이 있구나.”

신임 이 대통령 측은 말했다. “입주할 때 용산관저가 텅 비어서 무덤



2017년 1월 15일 7000명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손가락혁명군>(댓글 부대) 출정식. 이들이 국내 최초의 댓글단, 개딸들이다. (출처 : 유튜브 ‘재명투게더이재명’, ‘팩트 오브 이저션’)

같았다. 티타임 할 탁자와 티 하나 없다.” 또 다른 인터넷 자료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새 대통령이 입주할 모든 기본 준비가 다 돼있다.”고 했다. 개수영장 설에 대해 그 관저에 몇 번 갔었다는 서정욱 변호사는 “거기서 개 수영한 일 없다.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방한하기 전에 정원이 너무 허전해서 조경용으로 작은 수조를 만든 것”이라고 유튜브 대담에서 말했다.

빈자리에 입주했으니 빈자리로 남기는 게 정상이다. 떠날 때 윤 대통령은 피눈물을 흘렸을 터이다. 떠난 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나라에서 생활비도 못 받고 겨우 건강보험으로만 살게 됐다. 그럼에도 온라인은 잔인하게 등에 비수를 꽂고 있다. 개인이 이사할 때도 집 정리하려면 3일은 최소한 걸린다. 경호원과 도우미 등 종사자들까지 수십 명이 각각 흩어져서 나가는데 8일이 간다. 국방부가 사용하던 비밀창고 병커도 갈 때 국방부가 비우고 갔으니 윤 전 대통령도 필수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넘기고 나머지는 비우지 않았을까.

윤 전 대통령 주변엔 파파라치가 넘쳐서 관저를 떠나기 전에도 드론이 경내 산책 모습을 찍었고, 퇴임 후에도 문밖에만 나서면 즉시 유튜브에

오르고, 댓글도 악의적이다. “윤 그 X의 아파트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친구가 살아서...” 등.

탄핵, 파면, 형사재판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날마다 자기 집안에서만 두문불출 집거하라는 건 부당하다.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는 법원단지 옆이다. 그곳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협박 글도 인터넷에 올랐었다. 법원과 이 아

학벌을 가진 커리어 우먼이다. 경기대 회화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외 네티즌들의 제보 때문에 숙대 석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일부가 표절 혐의로 학위가 취소됐다. 김 여사는 국전에 입선한 서양화가이며 결혼 전에 개인전 3회, 문화예술 기획전시업체인 코바나컨텐츠 대표, 해외 예술 거장 초대전 다수, 폴란드의 1급 대십자가 공로훈장 수훈, 예술의 전당 예술대전에서 최우수상, 최다관객상, 기자상, 국민대와 안양대 겸임 교수, 그 외 많은 대학에서 언론학과 예술 경영학 관련 전문 강의를 섭렵한 학구파다. 숨은 봉사활동도 너무 많다.

대학 시절의 통통한 김 여사 얼굴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며 댓글은 “얼굴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페이스오프’ 수준으로 성형했다. 그 얼굴의 줄리라는 호스티스를 립살롱에서 봤다.”였다. 줄리라는 이름 이상으로 도 넘은 난잡한 글들이 인터넷에 더 있는데 지금 차마 쓸 수 없다. 조용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이없게도 중상모략 목적으로 누가 올린 글이 삼시간에 산불처럼 퍼졌다. 김 여사가 아니고 누구라도 대학시절의 수수한 사진과 50대의 현재 사진을 동시에

정치 댓글단 원조는 8년전 ‘손가락 혁명군’

김여사 사생활에 터무니없는 중상모략 난무

파트 부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날인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은 ‘윤 어게인’ 시위가 열린다. 대통령 부부는 13년 전에 중매결혼하고 법조인들의 집단촌 같은 이곳에서 신혼부터 살았다. 이곳에 보금자리를 꾸민 동기조차 왜곡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에 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은순 여사의 2남2녀 중 둘째, 장녀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혐의 등에 대해 잔인하고 끈질긴 악의적 여론의 못매질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시절부터 몇 년째 관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 최고학력의 엘리트 커풀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지지 세력이나 기반이 없는 약점을 노려 끌어내기에 혈안이 됐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중 가장 화려한

처음 보면 선뜻 동일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를 잡으려는 특검법까지 통과됐다. 죄가 입증되면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 부부를 시궁창에 박는 건 자기 손을 박는 일이다. 전부터 의혹이 많은 다른 2김 여사도 함께 수사하기를 많은 국민은 바란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다. 손가락혁명군(댓글부대) 출정식장에 <邪不犯正(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이라는 4자성어 현판이 붙어있었다. 악은 선을 못 이긴다는 뜻이다. 배가 고파서 빵 한개 훔친 장발장이 평생 무자비한 악질 경감에게 쫓긴 소설도 떠오른다.☞

히우 칼럼

“미국 사회는 사회적 신뢰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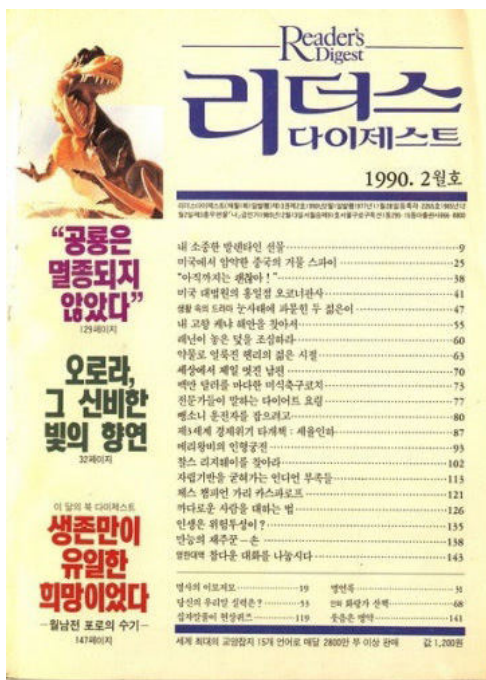
한영탁
본회 자문위원
수필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코리아의 이름 없는 소시민인 내가 세계 유일 초강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보증을 선 적이 있다.

1986년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미국 LA 지역에서 유도 도장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국제전화로 걸려왔다. 곧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의 취업을 위한 신원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한국의 한 월간 잡지 편집장인 나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시민인 자네 아들의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친구는 UCLA(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를 졸업하는 아들이 FBI(미국 연방수사국) 요원으로 지원하는 데 이민 출신 아버지와 가까운 모국인 보증인 한 명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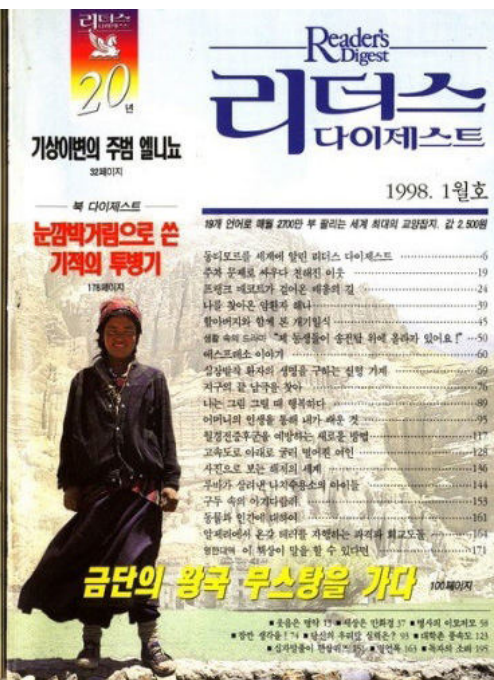
나는 미국 출장 때 자주 친구의 아들인 제임스를 만나 잘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무술 사범인 아빠에게 유도와 태권도, 합기도를 배운 무술 유단자로 팔척장신의 늠름한 젊은이였다. 게다가 주말이면 교회에도 잘 나가고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는다 했다. 학업 성적도 괜찮아서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한 마디로 어긋난 길로 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서 문제인 교포 사회에서도 알아주는 건전한 모범청년이라 할만 했다. 아버지인 내 친구도 LA에 이웃한 그랜데일(Grandale)에서 큰 무술(martial art) 도장을 운영하며 미주씨름협회장, 평통자문위원을 지내며 LA 교민 사회에서 성공한 인사로 존경받고 있었다. 여담이지만 LA 흑인폭동이 일어난 뒤 가게를 운영하는 교민들이 그의 도장을 찾아와서 유도 도복을 입고 그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매장에 걸어두는 일이 많았다. 일종의 강도 예방 처방이었다.

나는 고향 출신 국회의원 M 선배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글판.

보증서를 받아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매니징 에디터(managing editor)인



우리 창간호에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실고 싶어했다. 나는 미국 본사 출장 때 그쪽

관 담당 직원은 다이제스트 에디터로 내 직함이 표시된 서류를 두 말 없이 바로 승인해주며 곰살궂게 굴었다. 또 한번은 코리아의 민간대사(civilian ambassador) 자격으로 미국의 한 지방 방송국에 언론 연수차 간 적이 있다. 내가 인사를 하자, 방송국장 나리는 두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비스듬히 안락의자에 누운 자세로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에디터로 찍힌 내 명함(visiting card)을 본 순간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다정하게 굴었다.

국제전화에 있는 지 얼마 뒤 FBI 직원에 필요한 신원보증서 양식이 우편으로 내게 송달되었다. 나는 그 양식

美 국민들 ‘리더스 다이제스트’ 신뢰감 높아 한국어판 창간 때 닉슨 키신저 축하글 받고 美이민 친구 아들 신원보증할 때 위력 발휘

자네의 보증이면 충분하다고 잘라 말한다. “FBI가 국회의원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에디터(편집장)인 자네 추천을 더 반길 것”이란단. 장난으로 하는 말로 들었는데 친구는 진지하게 한 말이라고 우겼다. 그때 이미 창간 반세기가 넘는 연륜에다 미국에서만 해도 매월 1,800만 부, 해외 판(版) 1,200만 부 판매의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가진 세계 최대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미국이란 나라 안에서 차지한 위상이 그처럼 대단한지 놀랐다. 그것은 한 대중 출판 미디어도 든든한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문화적 깊이로 느껴졌다.

하긴 나는 그 전에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위상을 실감한 적이 있었다. 1978년 11월 한국어판 창간을 앞두고 내가 소속한 회사의 윗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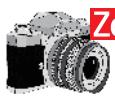
편집 주필에게 일단 그 뜻을 전했다. 하나 그리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어판(版) 창간을 앞두고 본사에서 실제로 닉슨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든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아 보내왔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란 대중 잡지가 얼마나 대단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의 창간축사도 받을 수 있었다. 큰 나라의 최고지도자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나오는 잡지에 축하를 보내준단 말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쌓아올린 큰 신뢰가 아니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 사회가 이 월간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얘기해주는 내가 겪은 사례는 더 있다. 미국 입국 비자 심사가 까다롭던 시절, 서울의 미국 영사

이 요구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적기하여 보냈다. 어쩐지 여개가 으쓱해졌다. 내가 미국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다니 대단히 자랑스러웠다. 평소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여겼던 자신에 대한 뿌듯한 신뢰와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친구 아들 제임스의 FBI 요원 지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워낙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 탈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임스는 UCLA를 나온 후 연방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큰 법률회사(law firm)에서 일하고 있다. 장가도 들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산다. 친구는 자기와 아들은 아직도 나의 신원보증을 고맙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게 더 고마운 것은 사회적 신뢰의 가치를 체험한 일이었다. ㉠



Zoom in

경복궁을 찾은 외국 관광객 머리위로 서운(瑞雲)이 하늘 가득



이제는 국제적 관광명소가 된 서울 경복궁은 외국 관광객들이 제1순위로 찾아오는 명소 중의 명소. 경복궁은 조선이 건국되고 3년이 지난 1395년(태조 4) 9월에 창건되었다. 인왕산과 북악산을 병풍삼아 우뚝 솟아있는, 경복궁에서도 제일 웅장한 건물이 근정전(勤政殿)이다.

근정전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거행한 건물로 부지런하게 정치하라’는 뜻을 품었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과거시험, 사신 접대 등 수 많은 의식과 행사가 열렸던 조선 왕실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지금은 여기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마침 대한민국의 상서로운 기운을 펼쳐보이듯 서운(瑞雲)이 하늘가득 몰려왔다.

〈류기성·사진작가·전 중앙일보기자〉



‘피에타Pietà…’ 이땅에 비극 일지 않게 하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은 하도 많이 쓰고 들어서 이젠 거의 잔소리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이 말이 자주 들먹여지는 것은 이 속담에 담겨있는 교훈의 농도가 아주 진하기 때문이다. 소먹이는 사람들은 늘 내 소가 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그런데 묘한 것은 소를 확인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외양간을 돌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소를 잃고 나면 그때서야 외양간을 돌보지 않은 사실에 자책한다. 이 속담에는 강렬한 경고와 예방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진부하지만 자주 쓰인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를 바로 풀어서 ‘외양간 고쳐서 소를 지키자’고 하면 말의 묘미가 줄어든다. 이런 직접적인 경고나 예방문구는 ‘자나 깨나 불조심’처럼 무미건조하다. 건성 들어선 큰 일 날 일인데도 우리들의 속성은 대비책을 늘 뒤로 미루곤 한다. 이것이 문제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모진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

1994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



괴사고는 6·25전쟁 이래 최대의 참사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어느 재난과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한 비극적 사고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였다. 2014년 4월 세월호는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를 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침몰은 세기적 비운의 타이타닉호를 재현하는 모습이었다.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 최신의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1912년이다. 2200여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튼을 출항해 미국 뉴욕으로 향해하던 중 그해 4

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남서쪽 바다에서 빙산에 충돌한 뒤 15일 새벽에 끝내 침몰했다.

승선자 2223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1도 되지 않는 706명. 무려 1517명이 사망했다. 생존자는 여자승객이 74%, 어린이의 52%가 살아남은 데 반해 남자승객은 20%만이 구조됐다. 1등석 승객 중에선 어린이 전원과 144명의 여성 중 139명이 살았고 남성은 70%가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구명보트에 태워 구조했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존 제이콥 아스톨은 아내를 보트에 태운 뒤 자신은 동승을 거부하고 배에 남아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거부 벤자민 구겐하임도 자신에게 돌아온 보트의 자리를 여성에게 양보하고 죽었다. 그는 그 여성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행동했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윌래스 하트레이가 지휘하던 8명

의 악단은 끝까지 갑판에 남아 계속 연주를 하다 전원 사망했다. 이런 얘기는 영화로도 제작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로부터 113년 한 세기가 더 넘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으로 유명한 피에타(Pietà)는 십자가에서 내린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 위에 놓고 애도하는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다. Pietà는 이탈리아어로 동정, 불쌍히 여김 또는 여성형 명사로 신상심, 경건, 효심을 뜻하기도 한다. 피에타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금에 울리는 것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든가 “자비를 배 푸소서.”라는 것이 아닐까.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는 “자비는 없다.”고 강변했다. 세계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소름이 끼친다. 국내 정세도 그렇다. 3개 특검이 칼날을 세우는 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 복수의 피바람이 불 것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사양하는 것도 대의 중의 하나다.☞

〈강이산·극작가〉

오!내고향 **충남 아산(牙山)**

‘충무공 영혼’ 깃든 충절의 고장



김동형
본회 회우, 소설가

아산 하면! ‘평택이 무너지느냐, 아산이 무너지느냐?’ ‘니네 놈들끼리 누가 피 터져 죽든지 그 꼴 우리는 구경만 할 거다.’ 배타적인 백성들의 이 작은 목소리라 하지만 이 전쟁은 장장 51년간이나 이어져왔던 시발점이 바로 이곳이 아니던가? 1894년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은 물론 동남아지역 일대를 점차적으로 점령한 다음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1945년 8월15일 미국에 의하여 처참한 꼴로 패망을 하지 않았던가?

지방관아 조병갑의 폭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고조될 때 대원군 이하응의 사주를 받은 녹두장군 전봉준이 동학도 10만 대군을 이끌고 하남지방(下南地方)일대를 휩쓴 다음 공주 우금치에서 최종적으로 고종황제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위기를 맞은 황실에서는 일본과 청나라에 지원요청을 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일본은 기관총으로 무장을 시킨 300명을 즉각 우금치에 출동, 동학군 10만 명을 단번에 초토화시켰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청나라군은 부랴부랴 풍도 앞바다에 입성, 아산 백석포를 거쳐 평택으로 진입코자 했으나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군을 퇴치한 일본군이 이미 평택에서 진을 구축하고 있다가 청나라 군이 진격해오자 일제히 공격, 섬멸했던 전쟁이 아니던가?

아산하면 온양온천을 떠올릴 수 있다. 근래에는 개발이 많이되어 그리 신기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부산의 동래온천과 함께 온양온천이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더구나 온양온천은 한양이 가까웠던지라 임금님들이 자주 찾아 의학의 원초적 원리로 대접받기도 했다. 조선의 4대왕 세종께서도 발진(종기)으로 살이 썩어



아산 현충사 전경.

들어가니 치료차 온양온천을 찾기도 했고, 제7대왕 세조께서도 피부병에 좋다고 자주 피접을 왔었다.

또 아산은 청백리로 유명했던 좌의정 맹사성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맹사성은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황희와 더불어 다시 세종 때는 좌의정으로

선조가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몽진 위기 때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모함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정탁의 변호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권물 장군 밑에서 백의종군을 하다가 다시 정유재란 때 수군통제사에 임명을 받아 명량해전(울돌목)에서 12척의 함선으로

현충사·외암리 민속마을 ‘관광 명소’

로 국정에 참여를 했는가 하면 태종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던 분이다.

아산(牙山)이란 지명은 주몽이 부여에서 망명하면서 졸본의 소서노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창건할 때 합의하에 소서노와 혼인을 함으로써 주몽은 고구려 시조에 오르게 되었고 소서노는 왕비로 등극했다. 하지만 주몽은 전혀 예소야와의 사이에서 아들 유리가 있었고 소서노는 전 남편 우태와의 사이에서 비루와 온조가 있었다. 그런데 유리가 어머니 예소야와 고구려에 찾아오면서 왕비 소서노와 두 아들 비루와 온조에게 특히 태자자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서노가 왕비의 자리와 비루의 태자자리를 포기하고 졸본을 떠났다. 소서노의 두 자녀 온조가 비루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되자 마지막 전승자인 지금의 영인 앞산에서 기념으로 사냥을 하다가 ‘아이를 업은 어머니상’인 비범한 바위를 발견하고는 온조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온 어머니 소서노와 자기에게 나라를 빼앗긴 형님 비루의 영상을 그려 어금니 아(牙)에 뽕산(山)을 붙여 아산(牙山)이라 이름 하였다 한다.

제14대 선조왕 25년, 왜적의 침략으

로 왜적 230척을 물리치는 대승으로 23전 23승 했다.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로 이순신(난중일기)은 세계사 해전의 영웅으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명종 때 이지함(토정)은 큰 벼슬은 하지 못했을 망정 자기운세를 점쳐볼 수 있도록 토정비결의 저서를 남겨 만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으니 또한 역사적인 아산의 인물이다.

현대사 대한민국 건국초기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때는 대통령을 역임했던 윤보선 대통령의 명문 가문도 아산이면서 선영도 아산 음봉면에 있다. 당대에서 당숙 윤치호는 조선 말기 김옥균과 더불어 갑신정변에 가담, 개혁운동을 했고 역시 윤보선의 삼촌 윤치영은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으니 으뜸가는 명문가 집안이다.

아산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현충사가 있다. 자그마한 사당 정도로 관리해오던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1차 성역화시켰다. 온양온천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는 신정호가 펼쳐져 있고 설화산 자락에는 옛사람들의 생활풍습을 재현하는 민속마을 외암리가 있다. 외암리

이달의 시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나는 당신의 별을 찾습니다

저 멀리 아득한 곳
별은 오늘도 변함없이 반짝입니다

늘 깨어있는 구도자이기에
정다운 눈길을 보내고 있군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눈이 덮인 쓸쓸한 벌판이지만

나는 밤새 뜬 눈으로 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감미로운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살자 하네요

장석영 본회 회장
시인, 수필가

가 민속촌으로 지정된 것은 1987년이다.

원래 아산에는 조선시대까지 지금의 온양읍내, 신창읍내, 아산읍내(영인) 이렇게 3개 원(院)이 있었으나 아산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외암리는 온양읍내 이웃동네로서 설화산 기슭에 있다. 또 맹사성 고향마을과 이웃하고 있는 이곳에는 진한평(평택 진씨)이란 분이 큰 부자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자 그 중 맏딸을 외손자 외안 이씨 이사종을 사위로 맞아들였는데 그 사위가 집안에 모든 대소사까지 스스로 맡아 일을 하므로 자연스럽게 진한평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서 진씨 집안에 후손 노릇을 했고 이 마을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600여년을 살아오면서 이웃을 돕는 많은 봉사를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을 이름이 이씨의 성을 따 외암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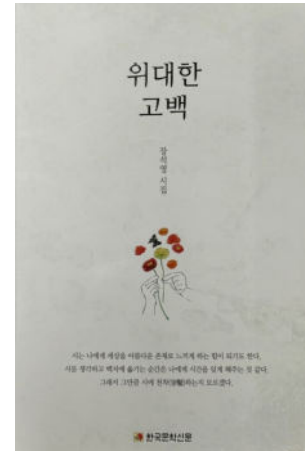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4Km 거리 탕정면에는 삼성전자에서 120만평을 개발·가전제품으로 덩치가 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더불어 사원아파트까지 지어, 지중해 마을로 이름하여 도시면모를 갖추었는가 하면 또 영인산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서들 광문 서해바다를 한눈에 그릴 수 있도록 했으니 이 또한 아산의 자랑이다.☞

회우가 낸 새책

장석영 본회 회장 ‘위대한 고백’ ‘외로운 밤에는…’

장석영 본회 회장(시인·수필가)이 시집 ‘위대한 고백’과 ‘외로운 밤에는 별이 많아지는 까닭을 아는가’ 등 2권을 잇따라 출간했다. 장 시인은 ‘위대한 고백’에서 “시는 나에게 세상을 아

름다운 존재로 느끼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나를 생각하고 백지에 올리는 순간은 나에게 시간을 잊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만큼 시에 천착(穿鑿)하는지 모르겠다.”고 술회했다.



위대한 고백



외로운 밤에는 별이 많아지는 까닭을 아는가?

서평

할미꽃 통해 우주의 생명감 확인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함축

신상성 문학평론가(서울문예디지털대 초대총장)는 장 시인이 시의 주제로 풀어낸 평범한 ‘할미꽃’은 바로 어머니이자 아내의 초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이며 거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할미꽃처럼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고백’에 대하여

장 시인의 제2시집이 되는 ‘위대한 고백’은 첫 번째 시집과 같이 F.니체의 철학과 일치하고 있다.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으로 설 파한 니체의 핵심사상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훼손된 인간성의 회복과 더불어 진정한 자유의 구현으로 인간 재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장시

인은 그의 ‘위대한 고백’에서 한갓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할미꽃의 위대한 정체성에 대한 발견을 담담하게 토로하고 있다. 남들은 그냥 지나쳐 갈 동산에 핀 할미꽃을 보고 새삼 우주의 생명감을 확인한 것이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늙은 꽃 할미꽃이 왜 장 시인에게는 니체적 상상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 동산에 오를 때면 늘 마주치던 그 꽃, 구름을 머리에 이고 바람을 허리에 감고 있던 그 꽃 할미꽃이 그에게 전율 같은 자각을 일으켰던 것 같다.

시인 장석영은 아내를 잃은 후 고향인 충남 아산으로 구두코를 자주 옮겼다. 같이 손잡고 걷던 아내의 그림자가 있을 터. 그곳에 할미꽃도 있다. 소멸하고 재생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원리 앞에 그는 “시가 바로 나에게 세상을 아름다운 존재로 느끼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외로운 밤에는 별이 많아지는 까닭을 아는가’에 대한 추론

장석영의 또 한편 서정시 ‘외로운 밤에는 별이 많아지는 까닭을 아는가’는 몇 년간 질병에 시달리던 아내를 잃게 되자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정리한 것들을 모아 담았다. 스스로를 정리하기 위한 방편도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곁으로 떠나간 아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그림자 프리즘이다. 아내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절절한 존경심이 포철의 용광로 향아리 쇠물이 넘쳐나듯 분수

처럼 치솟고 있다.

아내의 살아생전이나 사후나 변함 없는 장 시인의 니체적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점지해주신 위대한 애정의 연대감일 것이다.

그는 밤이면 불면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창밖의 별들을 헤아리며 아내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나, 둘, 둘셋...별들을 헤다보니 이전과 다른 별들이 쏟아지듯 폭증하는 것이 아닌가.

전편에 젖어 흐르는 시상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진지한 상징성과 지적 미학성을 잡아 올린다. 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강력한 주체성의 심미성도 있다. 장 시인이 ‘외로운 밤에는 별이 많아지는 까닭’을 시로 곱게 들려준다.

“주님,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다정한 벳’ 박화진 미카엘 영전에

현충일 새벽 미카엘(박화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이 서울신문 사우회와 대한언론인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알려왔습니다.

순간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한 충격을 느껴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뜸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건강이 나빠져 몸이 극도로 쇠약해 있었구나 짐작하고 서둘러 기도를 한 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신문사에서 가톨릭 신자모임을 같이 할 때도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열심히 나와 함께 기도하며 생활 나눔을 하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서울 진관동 기자촌에 살때 4대독자를 교통사고를 당해 잃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는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알려드리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도 잘도 견뎌냈는데... 하느님께서도 미카엘의 효심에 감동하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에게 태기가 돌아 아들을 다시 보내주셔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쉬며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싶어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가니 다시 얻은 아들이 두 누이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조문객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의 종교 교육을 훌륭히 시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주 옆에서 초등학교 4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이가 미카엘님의 손자라는 것을 얼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돌고 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광경을 목격



하고는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오고 감을 느꼈습니다.

벳 미카엘님과 맺은 인연을 좀 더 끈끈하게 이어가게 하려는지 곧 이어 입관예절이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고요히 누워있는 유해를 보았습니다. 화색은 돌지 않았지만 아주 편안히 쉬고 있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염습이 끝나고 성당의 전례절차에 따라 유해에 성수를 뿌리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하느님 나라’

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보통때 같으면 미카엘님이 다니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 하지만 주일에는 장례미사를 할 수 없는 성당 전례에 따라 영안실에 마련된 성당에서 그 성당의 주임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봉행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미카엘님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미카엘님은 가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인연의 끈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유족들의 말로는 주일새벽 발인을 하여 용인천주교묘지에 모셔진 부인 곁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한 생애를 살았지만 끝마무리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잘 마쳐졌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님 미카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류철희(본회회우·전 서울신문사회부장·전 충남도부지사)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25 ~ 2025.6.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전용호(2025)30,000 이용화(2025)30,000
서정혁(2025)30,000 송경섭(2026)30,000

산악회 산악회 7월 8일 삼천사 계곡



대한언론인 회산악회(회장 황우연)는 7월 산악회 모임을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 물놀이 에 평상에서 백숙을 먹고 오수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삼천사 계곡(서울 은

평구 진관동)으로 간다.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모여 7723번이나 7211번 시내버스를 타고 '하나고'에서 내려 그늘 숲길을 30여분 걸으면 삼천사 약간 위쪽에 가장 좋은 계곡위치 맛집, '청솔'이 나타난다. 삼복 더위엔 발 담글 수 있는 서울의 몇 안되는 검증된 코스다. 한 여름 적당히 땀 흘리고 몸보신도 할 수 있다. 배낭에 발 담근 뒤 뉘를 수 있는 수건 한 장 준비하시면 피서준비 완료. 힘들시면 삼천사까지 택시도 간다.

- 일시 :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집결장소 :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 코스 : 구파발역~하나고~삼천사~청솔 식당
- 오찬 메뉴 : 한방능이버섯·오리백숙
- 참가비 : 2만원(참가신청 : 김조영 부총무 010-8225-8500)



만보회 폭염 속 경희궁 산책하며 '마음의 사림'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6월 17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모임으로 경희궁 뒤편의 산책길을 걸었다. 경희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하나로 광해군 때 창건하여 고종 때까지 사용했다. 또한 회원들은 경희궁을 답사한 후 근처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둘러 '마음의 사림, 여운이 물결처럼'이라는 부제의 '조선시대 통신사 특별전'을 관람했다.

참가자 : 강두모 김기원 김조영 박종서 안종우 안홍렬 이우진 장 옥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회 우 동 정

김두호 부회장 세계효운동본부 고문 위촉

세계효운동본부(이사장 진요근)는 지난 6월2일 김두호 본회 부회장(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상임이사·사진 왼쪽)을 효문화 확산과 계승 발전을 위해 세계효운동본부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두호 회우는 (주)인터뷰 365 창간 발행인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과 서울신문사 사우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구종 회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콘서트



정구종 회우(한·일문화교류회 회장·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고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는 지난 6월19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서울 한강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정 회우는 또 지난 6월 26일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회의실에서 제119회 동서사랑방 특별강연 및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연제는 '한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중·일'이고 연사는 이 혁 한·일미래포럼 이사장이 맡았다.

이규섭 회우 '허튼소리' 출판기념회 열어



이규섭 회우의 산문집 '허튼소리' 출판기념회가 지난 6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본회 박기병 전 회장, 김진배 원로 회우가 축사를 했다. 장석영 회장은 저서 10권을 기증받고 축하했다. 이날 기념회에는 9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황우연 회우 경향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경향신문 사우회 황우연 회장은 6월 19일 리베라 호텔 뷔페 '더칼라'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 회장은 1965년 입사, 올해 구순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간을 경향신문과 사우회를 위해 헌신한 강한필 상임고문께 사우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언론가 소식

신문윤리위, 기사 122건 등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14일 제 997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22건과 광고54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을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신문 리더스금융포럼 개최

서울신문은 지난 6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주제로 우리 금융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는 자리였다.

한겨레신문 창간 37돌 기념식

한겨레신문은 지난 5월15일 본사 3층 청암홀에서 한겨레신문 창간 37돌 기념식을 개최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화진 회우
(전 서울신문 논설실장) 6월6일 별세 향년 87세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 | | | | | |
|--|--|--|--|--|
|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토도, 경륜/경정 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금 조성 | 스포츠복지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력100, 생활체육 시설 조성 등 지원 | 스포츠산업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 스포츠 기업, 일자리 및 창업 등 지원 | 서울올림픽레거시 사업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 기념관, 소마미술관, 서울올림픽파크텔 등 운영 | 체육인재 육성/지원
 체육인재 육성 (K-스포츠 에듀),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인 복지 지원 |
|--|--|--|--|--|